



2020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안산·김제덕(왼쪽 사진 오른쪽)이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한 김준호·오상욱·구본길·김정환(오른쪽 사진 왼쪽부터)이 7월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양궁 남매·펜싱 F4 모셔라

강철멘탈 안산·파이팅 김제덕 1순위 사브르 금펜싱 4총사 여십 저격 기대 탁구신동 신유빈·수영 황선우도 인기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스타들이 잇달아 탄생한 가운데 이들을 향한 방송가의 러브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겪은 갖은 고충 등 뒷이야기에 관심 많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의 시선이 더욱 쏠린다. 이미 일부 선수들이 몇몇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확정하면서 도쿄올림픽이 낳은 스타들에 대한 방송가의 손짓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어벤져스’, ‘강철멘탈’… 모두 오세요!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정환(38)·구본길(32)·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25·성남시청), 김준호(27·화성시청)가 8일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와 15일 JTBC ‘아는 형님’에 각각 출연한다. 이들은 7월28일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탈리아를 꺾고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2연패 쾌거를 이뤘다. 환절간 외모로도 시청자 눈길을 모아 ‘F4’, ‘어벤져스’로 불리고 있다. 3일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터뷰 등 섭외 요청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선다 이들과 함께 17세의 탁구 신동으로 불리는 신유빈(대한항공),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최종 5위를 차지한 황선우(18·서울체고), 2m35로 뛰어올라 한국기록을 다시 쓴 육상 높이뛰기 우승자 안산(20·국군체육부대) 등도 주요 출연 섭외 대상자 물망에 올라 있다. 이미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예능감각을 뽐낸 여자배구의 ‘식빵언니’ 김연경(33·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등에게도 다시 시선이 쏠린다.

그와 함께 혼성 단체전에 나섰던 “파이팅!(파이팅)”의 주인공 김제덕(17·경북 일고)은 다음달 미국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계획이어서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이번 올림픽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각기 무대에서 선전한 국가대표들이다. 특히 경기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거침없고 당당한 자기표현, 메달의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에 수긍하며 내어 보인 밝은 표정과 웃음의 발랄함, 케이팝 스타들에 대한 애정을 스스럽없이 드러내는 평범함에 대한 공감 등 매력으로 경기 중계방송을 지켜본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섰다.

3일 한 방송관계자는 “각 선수들이 감염병 확산 여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면서 겪은 고생담도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담으로도 뒤지지 않는 선수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려는 각 프로그램 제작진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방송 ‘베테랑 3인방’ 성장 키워드 도전장

신동엽 ‘탈라랜드’ 직접 노래 반전미 이경규 ‘편먹고 공치리’ 골프실력 뽐내 이금희 ‘거침마당’ 황당 주제 토론에능

데뷔 30여년의 방송 베테랑들이 ‘성장’을 키워드로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소재로 성장기를 그려가고 있다. 능수능란하게 진행 솜씨를 자랑해온 모습과 달리 새로운 영역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으로 출연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새롭다”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주인공은 10일 첫 방송하는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탈라랜드(탈라랜드)의 신동엽을 비롯해 현재 방영 중인 SBS ‘편먹고 공치



리’의 이경규, 카카오톡 ‘거침마당’으로 예능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금희이다. 신동엽은 ‘탈라랜드’로 데뷔 30년 만에 노래 실력을 선보인다. 배우 김정은·이유리·고은아, 방송인 조세호·황광희와 함께 이승철 등 가요계의 ‘전설’들로부터 노래 강습을 받는다. KBS 2TV ‘불후의 명곡’ 등 음악 소재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직접 노래를 부르기는 처음이다. 제작진이 내세운 시청 포인트도 “노래에 대한 진심으로 미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신동엽의 ‘반전 매력’”이다. 1995년 캐럴 음반을 출시할 정도로 평소 노래에 관심이 많아 섭외에도 단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폭 긴장한 채 ‘이름 모를 소녀’를 열창하는 예고 영상도 일찌감치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경규는 ‘편먹고 공치리’로 2008년 MBC 에브리원 ‘골프의 신’ 이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골프채를 잡았다. 가수 이승기, 이승엽 SBS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골프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골프 붐을 타고 젊은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으면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웨이브의 인기

프로그램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예계 실력자로 손꼽히는 명성과 달리 매회 공이 벅커에 빠져 정처 없이 타수를 늘려가는 모습이 특히 새롭다.

연출자 안재철 PD는 “골프의 신’ 이경규가 고정 출연자인 이승기·이승엽과 게스트들에게 ‘몰아붙이기’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최근 ‘거침마당’으로 ‘예능 신고식’을 치른 이금희는 데뷔 32년 만에 “예능 분야 신인상”을 노리고 있다. 엉뚱하기로 소문난 방송인 박명수, 이말년 웹툰작가와 각종 황당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예능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거침마당’을 통해 유튜브에서 1020세대 이용자와 거리를 좁히면서 ‘금희 언니’ ‘금희 누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최근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9주간 정상 BTS ‘버터’, 올해 빌보드 최장기간 1위 등극

뒷심 발휘하며 지난주 다시 1위에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기록 경신

시간이 지나도, 불발터위에도 ‘버터’는 녹지 않는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올해 가장 오래 1위를 차지한 곡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3일(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핫 100’ 최신 차트(8월7일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통산 9주 동안 정상에 오르면서 앞서 1월부터 3월까지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Drivers License)의 기록을 깼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곡으로,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틱톡,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7월20일 세 번째 영어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PTD)로 ‘셀프 바통 터치’한 뒤



그들 방탄소년단이 ‘버터’(Butter)로 빌보드 통산 9주째 1위에 오른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의 방탄소년단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

지난주 다시 ‘버터’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이를 포함해 모두 10주 동안 정상 자리를 지키며 ‘장기집권’하고 있다. ‘PTD’는 지난주 7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조금 밀려나 9위에 올랐다.

5월21일 세상에 나온 뒤 두 달 반이 지난 ‘버터’는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

힘입어 장기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높은 음원 판매량을 바탕으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버터’는 발매 10주 차인 23~29일 전주보다 2% 하락한 11만2900건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 주를 제외하고 모두 9주 동안 10만 건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꾸준함을 나타냈다. 라디오 청취자는 3050만 명으로 전주보다 1% 줄어들었지만 발표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3000만 명을 넘겼다. ‘라디오 송스’ 차트 순위도 21위를 유지했다.

방탄소년단의 ‘핫 100’ 1위는 ‘다이너마이트’(3회), ‘새비지 러브’ 리믹스(1회), ‘라이프 고스 온’(1회), ‘퍼미션 투 댄스’(1회), ‘버터’(9회) 등 통산 15회로 늘었다. 3일 리더 RM은 “늘 과분한 무언가를 써줘주셔서 참 황송하면서도, 우리 것이지만 사실 절대로 여러분 것이라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장애인 국제무용제 홍보영상 선물한 송중기



배우 송중기가 제6회 장애인 국제무용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최근 무용제에서 봉사하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중기에게 메일로 30초가량 홍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는데 기적이 벌어졌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6년간 행사 자료를 보내 달라 하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 최근 영상을 보내왔다”면서 “개런티 한 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성스럽게 촬영한 영상에 모두가 감동했다”고 썼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송중기가 수트를 입고 장애인 국제무용제를 축하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유태오 ‘페스트 라이브’ 주연… 할리우드 진출



배우 유태오가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유태오가 영화 ‘미나리’를 배급한 미국 A24의 신작 ‘페스트 라이브’에서 주연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한국에서 만난 어린 시절 연인이 어른이 된 후 재회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 ‘러시아 인형처럼’ 등에 출연한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가 유태오와 호흡을 맞춘다. 셀린 송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유태오는 러시아 음악가 빅토르 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레토’로 2018년 칸 국제영화제 무대를 밟은 바 있다.

유재석, 코로나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



방송인 유재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소속사 안테나는 “유재석이 음성 판정을 받고 5일 MBC ‘놀면 뭐하니?’ 촬영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해왔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이후 능동감시자로 재분류됐지만 선제적 조치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를 이어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 인기 여전 가수 BTS·배우 이민호 가장 선호

‘사랑의 불시착’과 ‘기생충’이 해외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드라마와 영화로 각각 뽑혔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이민호는 3년 연속 최고 한류스타의 명성을 굳혔다. 하지만 상위권 특정 콘텐츠 등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내놓은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도 한류의 인기는 여전했다. 지난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이 전체적으로 8.8% 늘었고, 한류 확산세도 지속됐다.

해외 한류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9.5%)이었다. 뒤이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4.1%, ‘부부의 세계’가 2.8%를 기록했다. 가장 선호한 한국영화는 ‘기생충’(18.4%)이며, ‘부산행’(10.2%)·‘반도’(3.5%)·‘#살아있다’(2.1%) 등 쏠림영화가 뒤를 이었다.

그룹 방탄소년단(22.0%)은 가장 선호하는 한국가수가 됐다. 2018년 이후 1위를 이어왔다. 블랙핑크가 13.5%로 뒤를 이었고, 싸이 2.9%, 트와이스 2.4%로 1~2위와 격차가 컸다. 연기자는 이민호(9.6%)에 이어 현빈(3.5%), 공유(2.3%), 송혜교(2.1%) 등이 뽑혔다.

‘케이팝’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국가 이미지가 됐다. 4년 연속이다. 하지만 실제 한류 콘텐츠 소비량은 드라마가 29.6%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가수, 배우, 드라마, 영화의 인기 편중과 상위권 순위 고착화 현상은 한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국가별로 한류 선호의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